“도심서 느끼는 화두의 묘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제2기 참선아카데미 개강

7월 20일까지 매주 교육
초기불교부터 간화선까지
한국불교 대표 고승 강의
“禪수행의 요체를 만난다”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이 4월 12일 개강한 제2기 참선아카데미 강좌에서 강의하고 있다.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커리큘럼

4월	26일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각산스님	6월	15일	석종사 혜국 스님 특별법문	
	17일	왜 한국불교는 간화선인가	서광스님		21일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의정스님
5월	24일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대해스님		5일	정신건강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수행	전현수 박사
	31일	세계명상 수행승 각산스님과 질의응답		7월	12일	일상에서 깨달음 실천하기	백성호 기자
6월	7일	참사람수행법	금강스님		19일	참선의 이론과 실제	각산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서울 강남 도심 속 참선으로 각광을 받은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 제2기 참선아카데미가 4월 12일 참불선원에서 개강했다. 약 200명의 일반인들이 참가한 제2기 참선아카데미는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올해에는 한국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 명상 고수들이 강의에 나선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를 통한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제2기 참선아카데미는 1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에서 내로라하는 고승과 참선 전문가들이 교수사로 참여한다. 제2기에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대종사 혜국 스님의 특별법문, 세계명상 수행승 각산 스님의 ‘참선 이론과 실제’, 내소사 고승 일오 스님의 ‘한국의 대선사 도를 말하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의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의 ‘너의 마지막 숨까지 수행하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참사람 수행법’,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 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은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전현수 정신의학전문의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 수행’,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문화 기자는 ‘일상에서 깨달음 실천하기’를 각각 강의한다.

아카데미 첫날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은 선종사와 선 수행을 주제로 강의했다. 영진 스님은 단순한 참선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기 · 중도 · 공 · 무아 등 핵심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참선만 해서는 얻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영진 스님은 이어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았다. 중생들이 갖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가르친 것”이라며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연기처럼 수행 역시 시작과 끝이 없다. 아카데미가 끝날 때까지 불교의 요체를 배우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불선원 신도회는 개강에 앞서 참선아카데미 공동 주최인 현대불교신문사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금 전달식에는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과 윤영숙 서울 참불선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참선지도자협회는 이론보다는 실참수행을 기본으로 ‘참선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봉암사, 해인사 등에서 수행한 30년 이상의 선승과 저명한 활동 이력을 갖춘 선원장, 정신의학 · 명상심리학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참선을 주요 콘텐츠로 불교수행과 문화를 알리고, 참선을 통한 심리치료와 현대의학, 명상과학 등과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자 출범했다.

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은 “체험 없는 이론은 번쇄철학이다. 참선이 불교의 수행법이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정확한 안목의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지침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며 “사성제와 팔정도 실천법의 진리를 한국정신문화와 과학명상으로 보급해 기업명상과 아울러 국민 힐링, 청소년 인성교육, 게임중독치료, 비행청소년 예방, 자살예방, 심리치료,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불교음악 · 문화재 전문가 되고 싶다면?

불교예술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오병욱)은 오는 5월 15일까지 2019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문예창작학과(시전공, 소설 · 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등이다.

특히 문화예술대학원의 한국음악전공에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前 중앙대 총장 · 청와대수석비서관)이 석좌교수를 맡아 후학 양성을 위한 지도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박범훈 교수는 우리 동양음악의 모체인 불교음악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훌륭한 교 · 강사를 초빙해 체계화된 전문 지식인을 배출할 예정이다.

실제 주요 과목으로 박범훈 원장의 ‘불교음악연구’, 조계종 어장 인묵스님의 ‘범패 및 작법’, 국악인 김성녀 씨의 ‘창작찬불가 연구 및 실기’ 등 불교음악 · 의례 전문가들이 강단에 선다. (02)2260-3606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홍보대상 첫 수상자 모십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제1회 생명나눔 홍보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올해 신설된 ‘생명나눔 홍보대상’은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 운동 홍보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천 대상은 △장기 · 인체조직 · 조혈모세포 등 기증 홍보와 실천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자 △생명나눔에 대한 취재 보도 방송을 통해 단체 홍보에 힘쓴 자 △생명나눔의 행사, 활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2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수상자는 홍보대상 1인, 홍보우수상 1인 등 총 2명이며, 대상에게는 200만원, 우수상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020년 1월 생명나눔 신년기자간담회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 창립

4월 16일 원주 국형사에서…
올해 첫 직장직능단체 발돋움


창립법회에 참여한 불자대중이 밝게 웃으며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가 4월 16일 원주 국형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지난 해 인천공항불자회, 수협불자회 창립에 이어 올해 첫 직장직능 신도단체로 첫 발을 내딘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는 원주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자 구성했다. 원주공공기관불자연합회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 후원으로 지난해 부터 출범을 준비해 왔다.

창립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 구룡사 주지 적천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상원사 주지 고공 스님, 국형사 주지 해공 스님 등 원주지역 사찰 스님들과 조계종 4교구신도회 김봉영 회장, 공불련 김상규 회장 등 공공기관 불자연합회 회원 70여 명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심무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훌륭한 신행단체로 발전하여 불교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혁신도시 첫 번째로 창립되는 불자연합회인 만큼, 자부심과 동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부담감도 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각오와 막중한 책임감을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많은 혁신도시 중에 강원 원주지역의 공공기관 불자들이 어려운 마음을 내었다는 것에 격려를 보낸다.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권력, 명예, 재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세상에 회향했으면 한다. 공공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하는 분들이니 지혜와 원력과 자비를 함께 가지고 불자로서의 서원을 세운다면 더 큰 공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는 국형사(주지 해공)의 지원으로 국형사 신도회, 무디타 합창단과 다도회 불자들이 함께해 법회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법회는 발원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는 지난해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대표로 심무경 국립공원공단 감사와 안무열 대한적십자 감사실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600여 원주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혜민 스님 초청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직능단체 신도조직화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두고 주요 지역별 공공기관 불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존 직장직능 단체들은 지역 내 사찰을 근거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지역별로 새롭게 불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와 기관의 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의전화 상담원 교육과정 실시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10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개운사 내 상담개발원에서 자비의전화 상담원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불교적 소양을 갖춘 불교상담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본적인 상담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이론과정과 자비의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을 실습하는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불교 상담의 기초를, 서울불교대학원대 외래강사 효록 스님이 발달의 이해를, 황선정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장이 상담의 원리와 기법을,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가 자살예방상담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전화상담 이론과 실습, 성의 이해와 상담, 집단상담 등을 주제로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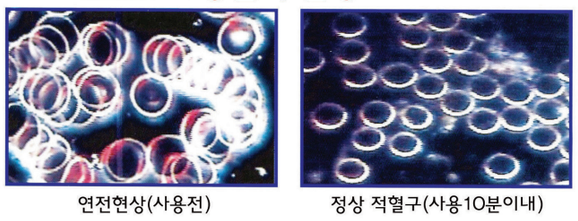
한편 자비의전화는 2005년 사단법인화된 불교계 최초 상담전화이다. **노덕현 기자**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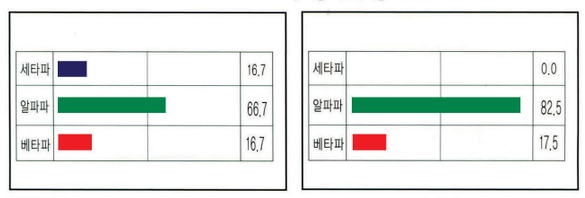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